

사순제 3주일

기도서 P. 260 C해

제1독서(출애 3, 1-8. 13-15)

제2독서(고린전10, 1-6. 10-12)

복음(루카 13, 1-9)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 강론



“자기?”

박 종 상 신부

“자기 배고프지 않아?” 가끔 귀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한 뜻을 가지고 듣는지는 몰라도 좋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나와 내 곁의 사람이 똑같다는 것을 나타낼이 아닐까요?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과 내가 하나됨 이외에 더 큰 사랑의 실체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더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과 뒤를 구별할 줄은 알아야 하겠습니까. 배고픈 자는 먼저 “나”입니다. 이를 찾지 못하면 너무 쉽게 잘못에 빠집니다. 복음 말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훌쩍 뛰어넘어 학살된 갈릴래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되어 잘못을 찾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선후를 가르칩니다. 회개 즉 “자신”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으로 눈을 돌리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모든 좋은 조건을 제공받았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베어지지 않을까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충명한 자요, 자신을 이기는 자는 패어난 자니라”(自知者英, 自勝者雄)라는 성현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머느리의 흉이나 손자들과의 다툼을 고백하는 할머니, 그 할머니를 나무라는 신부, 깜짝놀란 할머니 “지랄하네 작겠 깜짝 놀랐구만”이라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우스개 소리입니다. 그러나 웃음으로 그칠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춥니다. 다시 말해 핑계를 댁니다. 핑계 있는곳에 불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밖으로 나타내려는 “자기”가 아니라 내적인 모습, 즉 하느님의 본래 모습(모상)을 가리킵니다.

잘못 표현된 “자기”는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이 커질 때 다툼이 뒤따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고 태워주신 하느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자롭시다. 헛된 욕심이 생기거든 주님 앞에 꿇어 “자기”가 누구인가?를 여쭙어 봅시다.

때가 때인만큼 금욕과 단식의 희생은 바칩시다. 십자가의 길이나 고백성사, 여하튼 할 수 있는 때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합시다. 그 어느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나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하여 “자기”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나를 진실되게 알 때에 밖을 똑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학교 종교감 신부)



두 비문(碑文)

「비문/평생동안 밥 14만그릇 먹었음/별장 2, 주택4, 고급 자동차 5대, 은행에 100만불 예금/가난한 이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함/사장 김말동」

「비문/남에게 빌린 무덤에서, 가난한 목수 여기 있다/진리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다가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무참히 사형당함/가난한 이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함/목수, 예수 그리스도」—어느 책의 속표지에 그림과 더불어 적혀 있는 비문이다.

세상에는 버려질 사람들이 다 있다. 종업원을 가축처럼 대하는 피가 따뜻한 기업가도 간혹 있다. 그런가 하면 공장벽에 환경정리용으로 써붙인 “종업원을 가축처럼, 공장을 내 집처럼”이라는 포어를 깡그리 무시하고 염라대왕으로 군림하는 악덕업주도 있는 모양이다. 거기에 덧붙여 노동운동을 한담시고 꺾죽대는 사이비 노동운동가도 있고... 근로자들이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산업역군이라면 그들을 산업역군으로 대우(우대아닌 대우)해야 한다. 수출의 공로가 크면 또 그만큼 대우해 주어야 하고, 아니, 적어도 일한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받아 최저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루 반짝 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 제반의 법적인 조치(헌법에의 명문화)가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난한 목수는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 이에겐 빵을 주시고, 사로잡힌 이를 풀어주시고 억눌린 이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요. 비록 남의 무덤을 빌려 썼지만, 그(그리스도)를 뒤따라겠다고 나선 우리들이라면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악한자의 길만은 어지럽게 하고, 억눌린 그(근로자)들을 일으켜야” 한다.

숲 정이 산책



가장 보잘것 없는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



근로자의 날

—가톨릭 노동 청년회

노동자의 유일한 명절인 노동절은 구미 각국 노동자들이 산업혁명 이전부터 근 200년 동안의 피어린 투쟁을 통해 권익의 총화를 상징하는 뜻깊은 날이다.

□ 메이데이(May day)

원래 이 노동절은 1890년부터 메이데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5월1일을 기해 국제적으로 기념하여 왔던 것이다. 그 기원은 1884년 미국 노동총동맹이 시카고 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채택을 결의하고 1886년 1월의 관철을 위해 총파업을 단행한데서 유래된다.

당시 19만명의 미국 노동자가 “첫째의 8시간은 일을 위하여, 둘째의 8시간은 휴식을 위하여, 나머지 8시간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일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부르며 8시간 노동제 획득을 위한 총파업을 벌였다. 4만2천명의 노동자가 동맹파업에 의해 다른 15만명의 노동자가 동맹파업에 의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파업에 참석했던 공장의 노동조합 근로자들을 수백명 집단해고 하고 대신 300명의 핀커톤 사설 탐정국원을 포함한 수백명의 쟁의파 깡패들을 고용해서 투입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공장 부근에서 대중 집회를 열었다. 당시 노동조합 지도자 오거스트 스피즈는 이들에게 연설을 하던중 쟁의파 깡패들이 밀려나와 쌍방간에 난투가 벌어지고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는 폭탄이 연설자에게 던져졌다. 이에따라 스피즈등 5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1887년 11월 11일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3명이 금고형 선고를 받고 복역 했던 것이다.

그후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력을 시위하는 기념행사의 날로 정해지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도 1891년 메이데이에서 10여명의 사망자를 내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날

한편 우리나라에서 노동절을 처음으로 공공연하게 축하한 것은 1946년 5월 1일로서 서울 운동장에서 최초로 기념식을 거행한데서 비롯된다.

당시 기념식은 두곳에서 갈라져 거행되었는데, 공산당의 진위집단으로서 파괴와 살인을 일삼던 전평은 서울 운동장에서 행사를 가졌다. 한편 1946년 3월 10일 민주노동운동의 전국적인 조직체로서 서울시내와 영등포 일대의 직장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서울 운동장 야구장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는데 다채로운 구호와 깃발을 내걸고 시가행진등으로 노동자의 기세를 올렸다.

그후 전평은 2차에 걸쳐 전국 총파업등으로 직장 파괴 활동과 무자비한 살인적인 만행을 자행하였으나 대한노총의 강력한 타도활동으로 1947년에 이르러 완전히 일소되었다.

□ 단상 ⑧

생명의 연장

최 규 환(알베르토)

학문을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길게 연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상 성현들이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업적을 학문을 통하여 단 한권의 책, 혹은 그보다도 더 짧은 몇줄의 글속에서 단시일에 경험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일생에서 경험하는 세계의 몇십배 혹은 몇백배의 인생을 갖출 수 있다(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험(經驗)이란 말에 사용되고 있는 經자가 뜻하는 經 혹은 經書 經典이란 성현들의 글을 뜻한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글 속에서 경험하는 경험은 자기 자신이 체험하는 것보다도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나 오랜 시일을 통하여 갈고 닦아 왔기 때문에 더욱 만민에게 빛이 되어 진·선·미를 갖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겠다.

대한노총은 1946년이래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축하 기념해왔다. 1958년 10월에 개최된 대한노총 전국대의원 대회는 대한독립축성 노동총연맹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을 우리나라 고유의 새로운 노동절로 할 것을 결의하고 1959년부터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시위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63까지는 이날도 평일과 같이 일을 해야만 생계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1961년 산별 조직을 기관으로 발족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의 꾸준한 활동이 주효하여 정부에서는 1963년 4월 15일자로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법제화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이날을 명실상부한 노동자의 명절로써 전국의 조직, 미조직 노동자를 통하여 하루만이라도 일손을 멈추고 가족과 더불어 이날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 우리의 다짐

우리는 이날을 기해 경향각지에서 성대한 기념식과 각종 축하행사를 갖고 이날의 의의를 되새기며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전진을 다짐한다. 우리는 이날의 의의를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 여러분!

우리는 선배들이 피와 죽음으로 찾아 놓은 근로기준법 등 우리들에게 부여된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간직하자.

우리는 생각하는 노동자가 되자.

발전하는 노동자가 되자.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수많은 현재의 노동 동료와 후배들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깊이 연구하여 실천하는 노동자가 되자.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McGREGOR Weekend**
맥 그리거 워크 앤드

성인·아동용 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율리안나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유명강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④ 0 9 2 1

범 띠도(덕배)·이 마리아

□ 근로자의 날



공순(工順)이 유감(有感)

나 증 윤(스테파노)

해방후 우리 말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설한 이후,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발전을 했다. 동시에 구분별한 외래어 남용으로 상당한 시련도 겪어야 했다. 그 중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언어의 미화 현상이다. 어감이 나쁘던가, 어색한 표현은 미화해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미화과정에서도 미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용되는 말이 하나 있다. 「공순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공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불철주야 일하는 나이 어린 여성 근로자를 가리켜 공순이라고 한다.

확실히 여공들이 학벌이나 옷입는 멋이, 돈 많은 집 딸과는 차이가 있는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공순이라고 야유할 수 있을까? 그들도 돈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대학도 다닐 수 있고, 학사 박사도 될 수 있고, 세련되게 옷도 입고, 세치한 멋도 부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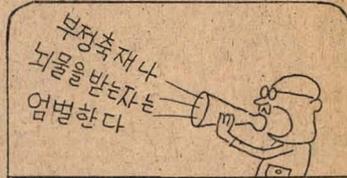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어미 뱃속 잘못 골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꿈도 키우지 못한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간 것 뿐이다. 그들도 부자집 딸이었다면 책을 들고 고궁을 찾으며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미국이나 프랑스로 유학 갈 꿈을 키웠을 것이다.

우리가 1,500불 소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공들의 피나는 땀의 결과다. 저임금에서도 불평 한번 없이 묵묵히 일한 그들의 노력없이 150억불 수출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 그들의 노동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은 것도 슬픈 일이다.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친문학적 수치의 부를 누리는 악덕재벌을 나무라지 못하는, 용기없는 우리가 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 못 배웠다, 세련되지 못했다고 야유해야 할까?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 그들을 공순이라고 야유하지 말자. 그렇다고 멋진 말로 미화해서 그들을 부를 필요는 없다. 학교 평준화다 해서 일류학교를 없애버리는 이 나라에서, 학교만 평준화할게 아니라, 부(富)도 평준화해야 한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 건설의 혜택도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공들의 임금도 사무원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인지도 모른다.

<김계 천주교회>

요심이 (345) 김병오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이 시계 점 열)
전화 ② 6219

① 알립니다

요즘 도처에서 「성체」 도난사고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실」 단속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반성합시다.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식, 보로

문화양행

오 증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 전주역 앞

범모약국

전화 3-5319
김 영 춘(아오스딩)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미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열
전화 ② 8188 (자 ③0369)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구역전 앞
최 윤 경 (유리안나)
전 화 : ② 8653

전기·산소용접·샷타·샷시·철제
냉난방막트·합석가공·도장공사
각종간판·현수막·아크릴

전주광고·공업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J.O.C 노동절 행사...3월 10일 오후 6시, 가톨릭센터 강당에서 행사안내-연극·강의·탈춤·좌담회
※ 산업전전에서 수고하시는 근로자 여러분과 뜻있는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2. 교리교사 및 청년 피정...3월 11일 오후 2시~12일, 가톨릭 센터에서
① 대상-각 분당 교리교사 및 청년대표 2명, ② 참가비-전과 같음
③ 지참물-공동체 성가집, 기도서, 묵주, 성서, 필기 및 세면도구
 3. 농촌 부녀지도자 교육...14일 오후 2시~16일, 가톨릭 센터에서
참가비-1,500원 (편도 교통비 지급함) 대상-농촌공소·분당에서 40명
 4. 제22대 4지구 중·고등학교회 임원...회장-김영수(부자), 부회장-양명희(전동)
 5. 평협 산하단체 임원 피정은 단체별 피정으로 대처...가까운 시일안에 회의를 소집 예정
- 문화강좌...15일 오후 7시30분, 가톨릭 센터에서, 강사-김연기 선생(강원일보 논설위원), 주제-문학과 정치
- 군인들을 위한 목주성금...장계 정영순(안드레아) 3,000원 여자 젠 모임...3월 16일로 연기



(중양)

전화 ②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성태수
보좌	신부	절태현
사도	회장	김병규

1. 꾸리아: 9일, 오후 2시 강당
 2. 남자 젠모임: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정신부님 사무실 여자: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 3젠 대회: 22일 오후 2시~23일 오후 6시
대상-중학생, 장소-강당, 회비-1,000원
주최-남자 젠분부
 4. 청년성가대 음악감상: 오늘 저녁미사 후 지도신부 사무실
 5.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노인반: 수요일 오전 10시~11시, 성인반: 주일 오전 11시30분~12시30분, 목요일 오전 10시~11시, 오후 8시~9시, 남자-오후 8시~9시 학생반: 주일 오전 10시~11시, 토요일 오후 6시~7시
 6. 분당 사무실 도서함이 비었습니다: 반납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380,992원

(노충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준근
사도	회장	박춘근

1. 금주는 학생주간입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관심을 갖읍시다
 2. 제3차 성령세미나 개최: 17일(월)~22일(토)까지
 3.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 민수기 전체
 5. 레지오 마리에 간부 모임: 오늘 오후 2시부터
 6. 신자카드 빠진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89,63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조신부님 영명축일: 3월 19일 축하식-3월 16일 공식미사 후
 2. 젊은이 성가연습: 수요일 저녁 7시30분
 3. 학생회 신입생 환영식: 일요일 학생미사 후
 4. 가정방문 실시: 3월 10부터 덕진동, 팔복동, 송천동 동시방문(반장님 구역장님의 적극 협조 있으시길...)
 5. 공소 판공일정: 시간 오전 10시~명일 오전 10시
전당리 20~21일, 미산리 25~26일
내동리 27~28일, 동산촌 28일 오전 10~11시30분
분당 판공일정: 4월 1일~2일 덕진동 전신자, 3~4일 금암동 전역 미사, 5일~팔복동, 송천, 학생
- 지난주 봉헌금: 250,90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순절 제1차 피정: 15일 오후 1시30분~16일 12시 제2차 피정: 17일 오후 1시30분~18일 12시
분당내 모든 신자들은 14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란 지참물: 성서, 기도서, 성가집, 묵주, 피정비 1,000원
강사: 교구청에서 7분(식사 제공)
2. 가정방문: 10일-태평동1·2·3반, 11일-태평동4·5·6반, 12일-태평동7반·진북1반, 13일-진북2·3반, 14일-진북4반(반회장님들 협조 바랍니다)
3. 반회장 회의: 9일 저녁 8시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4. 축! 영명: 19일 분당신부님(요셉) 영명축일입니다 축하식: 16일 공식미사 후

5.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이정용씨 맥)
 6. 대학생회 정기총회: 금일 오후 5시30분
 7. 어린이들을 주일학교에 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58,78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수녀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2. 반장님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할머니 모임(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학생회 육성: 중·고생은 학생미사(토)에 참여 바랍니다
 5. 가정방문: 11일(화)부터 실시
 6. 성가연습: 토요일 7시30분
 7. 전례안내(다음주) 독서-① 이정빈 ② 김광수
기도-① 한형수 ② 조동근
 8. 감사: 수녀님 비품 기증-오상팔, 김봉규, 고동춘, 조갑주, 김학래, 최병일, 최인의 의착P(금일봉) 장안웅(스텐 세수대야의 4점), 사도회임원(TV1대) 정재현(쌀소코리의 2점), 차상열(상 1점), 정양동(교두다라이의 2점), 이정빈(담요 1점), 김동신(후라이팬의 2점)
- 지난주 봉헌금: 136,895원 교무금: 198,000원

(술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16일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후원회 안내: 토요일 오후 3시 미사와교리
 3. 청년회 월례회: 3월 15일 오후 7시
 4. 신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토요일 오후 7시미사후
 5. 불 판공일정 안내(오전 10시 가정방문)
3월 11일-금암동, 12일-서신동2구, 13일-서신동1구, 18일-진북2동4반, 19일-진북2동3반, 20일-진북2동 6반~7반
 6. 신축기금 내주신 분: (다음주 발표)
- 지난주 봉헌금: 146,57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중

1. 자모회: 공식(10시)미사 후
 2. 장우회: 저녁미사후-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성가정회: 월요일(10일)12시미사후, 가톨릭센터
 4. 가정방문: 11~14일-동완산, 서완산, 풍남, 노송동 18~21일-동교동, 서교동, 전동, 중양, 다가동
 5. 다음주 복사
새벽미사: 사회자-이인홍, 독서-①박종주②배양길
공식미사: 사회자-이영자, 독서-①김복윤②성희권
저녁미사: 사회자-김윤주, 독서-①이영희②이상태
- 지난주 봉헌금: 323,631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주일학교 개학: 3월 1일부터 부모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2. 중·고등학생 미사에 중·고생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지난주 50명 정도)
 3. 불 판공성사에 준비를 합니다
분당판공: 22~23일, 29~30일
 4. 사순절 봉헌카드 애용함에 넣어주세요
 5. 유치원 개원: 3월 10일
- 지난주 봉헌금: 86,000원 어린이헌금: 4,880원 교무금: 125,500원